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11.24.(월) 06:00 < 11.24.(월) 석간 > 배포 2025. 11. 21.(금)

통상이 국력, 미래를 이끌 통상 인재 키운다

- 중앙 부처 통상 담당 공무원 대상 현장 교육 실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통상을 담당하는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통상 규범의 중심지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소재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관세, 무역구제 조치, 무역기술장벽 등이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22년부터 진행해온 동 교육의 규모 및 부처 범위를 올해 확대하였으며, 참가자 대다수를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디지털 무역, 보조금과 산업정책, 환경 등의 최신 통상 이슈와 무역구제, 무역기술장벽 등 주요 규범에 관한 WTO 및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이 통상 현안을 실질적이고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WTO 사무차장 Johanna Hill과의 간담회, 협상 전략·시뮬레이션, 민간 및 법률전문가로부터 듣는 통상 세션도 포함하였다.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대미 관세협상, 2025년 APEC 개최, 양자 FTA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대응하며, 통상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국력으로 직결됨을 다시금 확인하였다.”고 강조하면서 “통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인 바,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 공무원들이 역량을 키워 국익에 보탬이 되는 산업·통상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세계무역기구과	책임자	과 장	김파라 (044-203-5920)
		담당자	주무관	김지원 (044-203-59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